

#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해야”

### 전북상협, “착공만 앞둔 시점서 찬반 논쟁 ‘안될말’... 도민 모두 목소리 내야 할 때”

전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전북도내 상공회의소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방섭)가 지난 14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국제공항 건설은 그동안 전라북도 항공 오지라는 서러움을 떨치고

전북인의 자존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 기대가 높은 사업”이라면서,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고 현재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마무리된 착공만을 앞둔 시점에서 공항 건설의 찬반을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타 시·도의 경우 공항 유치

를 위해 지자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하나가 되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 전북에서만 분열의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도민들의 편의는 물론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전북경제의 체질개선과 함께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 친환경 상용차

산업, 제3금융중심지 지정,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기울어진 지역경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전북 최대 현안사업임에 틀림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방섭 전북상협 회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간에 총성없는 전쟁이 매우 치열하다”면서 “지금 우리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단일화된 목적을 위해 지역정치권, 지자체, 시민단체, 도민 모두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aT 김준진 사장,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준진 사장은 지난 13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방문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듣고 식품 포장재의 개발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수검사 과정 등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중소기업의 신기술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판로 확대와 수출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은 aT 김준진 사장(가운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김영재 이사장(좌측) 첫 번째. /김윤상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14일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도청 감사관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 건설현장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책 모색

### 건협 전북도회, 전북도 감사관실과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지난 14일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도청 감사관실(감사관 김진철)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전북도회는 부실공사방지 및 청렴도 향상 방안, 전라북도 기술사 시험의 주요 감사추진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건설자재 수급불안 등에 따른 업계 애로 해소,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발주 자체, 적정 공사비 미확

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현안문제를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윤방섭 회장은 “공공시설물은 예산의 질감 못지않게 계약 이행 결과의 건전성과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등 공공 일반의 이익까지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강조하며 “가 격상 단계에서 적정공사비 산출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기준 마련, 공기산정 기준을 실효성 있게

확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진철 감사관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건설업계의 경영환경에 공감을 표시하고, “건설업계의 현안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전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행정 견인, 수요자 중심의 대응하는 감사행정 구현, 건설분야 전반에 걸쳐 청렴문화가 확산 될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전주상의-사회복지모금회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협약

전주상공회의소 윤방섭 회장은 지난 14일 전주상의에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을 통해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윤방섭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상권 침체가 지속되고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면서 “각계 각층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 만큼, 오늘 경제계에서 피운 작은 촛불을 시작으로 도내 기업들이 모여 전북 구석구석의 어두운 부분을 환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버디펫, 전주시 길고양이 급식소에 사료기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김동수)과 연구소기업 (주)버디펫(대표이사 조범석)은 긴밀한 협업으로 연구소기업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바이오진흥원은 전라북도 출연기관 중 처음으로 지난 2018년 연구소기업을 설립했으며, 현재까지 4개소(농성 명분비 12.5%)를 설립·지원하고 있다. 그 중에 (주)버디펫은 바이오진흥원의 대체 단백질 소재를 이용한 떡갈비 조성물(10-1796363) 기술을 출자받아 2019년 설립했으며, 바이오진흥원과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반려묘 기능성 간식인 ‘갯시퍼 브랜드’를 출시했다.

해당 브랜드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Waiz)를 통해 첫 공개해 소비자들의 높은 기호도와 실구매자들에게 인정받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버디펫’과 ‘네이비소프’에서 판매 중이다.

한편 (주)버디펫은 영양 결핍이 심한 길고양이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전주시에 동물친화도시 정책에 맞추어 갯시퍼 레인보우를 기부했다. 기부된 제품은 닭가슴살, 연어 등 고단백 제품으로 영양소 결핍으로 면역력이 약한 길고양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버디펫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를 진행할 계획이며 길고양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며 “바이오진흥원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도내 연구소기업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바이오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새로운 바이오융합산업 분야의 사업모델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함께하는 ‘특별한 일손돕기’

### 농협 전북검사국, 감사기간 중 일손부족 조합원 마늘농사 도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식) 전북검사국(국장 이문구)이 지역농협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도와 화제다.

전북검사국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변산농협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던 중 농협 전무로부터 일손이 부족해 마늘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 이에 감사사업단은 감사 업무의 강도를 높여 종료 예정일보다 하루 앞당겨 13일 감사를 마친 후, 14일에는 작업복으로 같이 입고 일손돕기에 나섰다.

조합원 손모씨는 “일손 구하기 어

려워 마늘 농사를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농협 감사원들이 도와 줘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일손돕기 현장에서 이문구 검사국장은 “종합감사 기간 중이지만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영농철 인력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검사국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농·축협 본진 종합감사 시 임직원들에게 꽃바구니와 화분을 나눠주는 ‘꽃과 함께하는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화훼 소비촉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윤상 기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전북검사국이 지역농협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도왔다.

## ‘청년, 평화를 쓰다’ | 전기안전공, 완주 민주평통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지난 13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와 함께 ‘청년, 평화를 쓰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남북평화에 대한 청년들의 공감대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평화를 쓰다’에서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캘리그래피 강의를 열고 글씨쓰기부터 책갈피와 아크릴 액자 만들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주 목요일 한 차례씩 총 4회 진행한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청년들은 직접 만든 캘리그래피 작품들을 평화 캠페인용 굿즈로 제작해 지역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지현 사장은 “지역청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남북 평화에도 작은 물결을 열어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에도 완주문화재단과 ‘청년, 완주에 물들다’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청년들을 위한 문화 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남원=김기두기자

## 지리산 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시민대학 제8기 입학식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윤명수)는 최근 지역사회 환경리더 양성을 위한 2021년 국립공원 시민대학 제8기 입학식 및 강화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시민대학 제8기는 17명을 대상으로 입학식과 저탄소 실천 서약식, 국립공원의 이해,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주제로 강화를 진행, 9월 30일까지 2주간 목요일 오후에 이론과 현장 강의를 진행한다.

전북사무소 김창순 과장은 “국립공원 시민대학 운영으로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 및 탄소중립 가치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환경리더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 새만금 농어촌공, 잼버리 대비 대회 부지 매립 단축 공사

세계인의 축제, 세계잼버리대회가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린다. 세계잼버리대회 부지 매립공사를 조성중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이소열)은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계획공정을 최대한 단축해 올해 12월 완료 목표에 공사를 진행 중이다.

2020년 1월에 신규 착공한 세계잼버리대회 부지 매립공사는 부안군 하서면 공유수면 일원에 1공구 368ha, 2공구 516ha로 총 884ha 면적을 조성한다. 공사기간이 당초 28개월이었지만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24개월로 계획공정을 최대한 단축해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에는 세계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회(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이 부지 매립공사 현장을 찾아 이소열 사업단장으로부터 부지매립현황을 듣고 공사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소열 단장은 “세계 171개국, 만여명이 모이는 세계인의 축제,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계=박노태 기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유방암 건강강좌, 항암치료 완료 축하이벤트, 유방암 환우회 만들레 모임.

## 호남 유일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예수병원, 종합점수 100점 만점 받아

예수병원(병원장 김승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실시한 7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100점 만점으로 호남 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며 호남지역 암 치료 대표병원임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발성유방암으로 수술한 만 18세 이상의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구성부터 항암 화학요법시행률 방사선치료 시행률 기록의 충실률 등 총 10개의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김철승 병원장은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7회 연속 1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은 환자의 진단부터 수술 및 치료까지 의료진들의 세심한 노력과 환자중심 진료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암 환자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며 환자의 마음까지 공감할 수 있는 예수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수병원은 유방암환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암환자 환우회(민들레)와 지역강좌 및 환자의 항암치료 완료 시 축하 이벤트 등 환자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